계속 피하여 도망치면 이루는 이상한 소망

(히6:9~20)

13.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6.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17.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계속 피하여 도망치면 이루는 이상한 소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계속 피하여 도망치면 이루는 이상한 소망’
한국 리더십 센터에서 발행한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꿈과 끼를 펼쳐라, 밤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이게 책 제목이에요.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도 대충 어떤 성향의 책인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 간직해야 될 원칙으로서의 신념들을 나열합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많이 접한 내용들도 있고, 또 아주 낯설면서 상당히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열 가지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성공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이거 뭐 만고에 정당한 명제지요, 너무 익숙합니다, 익숙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옳은 얘기에요.
또, '내가 꿈을 이루면 난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 아, 이거 좀 매력이 있어요.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들의 변명이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나폴레옹의 말을 새롭게 해석한 아주 멋진 시도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기 싫다고 다짐하는 것과 같다' 이거 참 매력적이에요, 어떻게 요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기 싫은 나 자신에 대한 자기 합리화라 이겁니다.
하기 싫으면서 괜히 싫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니까 할 수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참 새롭잖아요?
그리고 '정직만큼 풍요로운 유산은 없다' 이건 너무 익숙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정직하려 노력해본 사람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것은 인생의 깊은 철학과 고뇌의 경험이 담겨진 말들입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적극적인 태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한 불굴의 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실천과 실행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꿈과 비전과 소망에 관한 격언들이 취하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능동적인 적극성입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능동적으로 마음가짐을 갖고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가라! 그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허물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앞에 나열했던 그런 신념들이 우리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정말 특이하고 낯선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라고 나와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기업을 유산으로 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맹세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어진 이 소망을 얻으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의 헬라어 원문은 고대로 직역을 하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을 하여 도망치는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나를 사로잡으려는 위험을 맞서서 극복하고 넘어서는 게 아니라, 소망을 얻으려고 그러한 위험성이 있을 때, 피하여 도망칩니다.
피하여 도망치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서서 싸워 이기고 극복해서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과 비전의 성취는 맞서고 도전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목표의식을 관철해나갈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하고 도망가야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하고, 또 소망이 다른 소망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꿈과 비전과 다른 것은, 이 소망은 우리 속에서 발생한 바람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소망의 내용이 아니에요.
나는 상관도 없습니다, 그것이 내게 있어야 좋은지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걸 가져라, 내가 이걸 너에게 갖게 해주겠다, 너에게 갖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나를 두고 맹세하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안에 들어있는 소망이지, 내게서 발생하는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려면 적극적으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감으로써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피하여 도망하다보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대체 이 소망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져 나오는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의 길은 예수님을 날마다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건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까지 했는데도 곁길로 나가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믿기 시작해서 성령에 참예한바가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았는데도 이렇게 멸망의 길로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또 캘빈을 따라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옳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여간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하자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길가 밭'은 아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한 말씀 속에서는 받아들이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돌밭은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어려움이 주어지고 박해가 주어지면, 뿌리가 그 돌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말라 죽는다.
또, 가시떨기 밭에도 떨어져서 싹이 나기는 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가시떨기, 즉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리, 돈 문제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막혀서 자라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므로 받아들이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하는 것은 어제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의 견인, 그것은 옥토가 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옥토가 되자, 구원의 길을 걷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날마다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한번 일어난 십자가사건을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사건으로 신앙 속에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날마다 생활화하면서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권유하는 권면 속의 핵심단어가 소망입니다.
결국 날마다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이루게 될 소망은 달리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피하고 도망쳐서 이룰 수 있는 소망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소망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받게 된 소망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동원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과 능력에서 나오는 소망이니까 제일 좋은 소망 아니겠어요?
그처럼 우리가 도망치면서 이루어야 될 소망이 뭐예요?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도망을 쳐야 됩니까?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도망쳐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과제 아니겠습니까?
자, 소망이 뭡니까?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라면 예수님에게서 발견해야

해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무서워하신 것과 연관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무서워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게 어디에요? 겟세마네에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마음이 짓눌리셔서 기도하시는데 땀에서 피가 나십니다.

그러면 뭘 그렇게 두려워하신 걸까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렇게 육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할 분이 풍랑 속에서 주무시겠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집사님인 상태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에 천사의 빛을 띠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게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짓눌리셨겠습니까?
루스드라에서 사도바울이 전도할 때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았어요,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그래서 성 밖에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성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은 육체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떠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땀이 피가 되었다는 얘깁니까? 말이 안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진짜 무서워하신 게 뭡니까? 왜 우리가 이걸 물어봅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신 것은 저주입니다.
왜냐? 저주 속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이제 저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은 그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일이지, 저주 그 자체가 아닌 거예요.
설령 육체가 찢기고 찔리고 못 박히는 고통이 있더라도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우리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고통이지만 그것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저주가 그 두려움이에요,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이 멀쩡하게 아버지로서 살아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어릴 때부터 십자가 이전까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아버지와 연결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아버지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주의 단계로 들어가면 이 아버지와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게, 육체가 그렇게 찢기고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알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는 그것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그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무서운 일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게 그렇게 예수님을 무섭게 만든 거예요.
스테반 집사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돌에 맞아도 웃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루스드라에서 맞은 사도바울처럼 다시 일어나서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끊어지는 이 저주를 주님이 이렇게 무서워하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주님이 이상한 건지 우리가 이상한 건지, 소위 자연인들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끔찍이도 무서워하셨던 이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무서워하신 이 저주가 편안해요, 안락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이 저주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집니까? 그 저주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밖에 연결될 수 없어요, 무릇 지킬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상실되는 것이 저주고, 이 저주로부터 우리가 소망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소망이 뭡니까?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를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소망으로 우리의 소유로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아버지 자신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아버지와 끊어지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가장 무서운 것은 육체가 찢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아버지와 끊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끊어집니까?
마음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좋아하는 것이 생길 때 끊어집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 원래 마음은 하나님만을 좋아하고 피조에 속해있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온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해야 될, 좋아한다는 인간의 성품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만든 겁니다, 원래가, 그래서 우리 인간이 누구를 좋아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만들어진 성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품을 피조의 세계 안의 다른 것들을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뺏겨지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이 뭡니까? 내가 사랑할만한 것, 내가 좋아할만한 것, 반대로 내가 싫어해야 될 것, 내가 미워해야 될 것, 이걸 판단하게 한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었고, 그 끊어짐 안에서 편안하게 저주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부터 도망쳐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피난 갔습니까?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 이 지상에서의 안정된 삶을 사람들은 다 원하잖아요, 그걸 향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으로부터 도망칩니다.
도망칠 때 아내가 문제가 됩니다, 아내가 예뻐요, 모든 사람이 탐낼 만큼 예쁘게 생겼습니다.
근데 내가 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치안부재의 현실 속에서 아내를 지켜낼 수 없을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뺏기지 않으려면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 마음에서 아내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20장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내를 취하게 되는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 보면, 그랄 왕이 사라를 취하려 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자의 손끝 하나라도 대면 너와 너에 속한 모든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랄 왕이 깜짝 놀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네가 나를 속였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비 집을 떠나서 방황하며 여기저기 다니게 하실 때에 떠날 때 출발하면서 마음에서 아내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아내를 버리지 않고는 떠나지 못하니까, 아내로부터 도망쳐 나온 거예요.
아내에게 말하기를, '어디로 가든지 나의 누이라고 말해라, 그게 나에게 베풀 은혜다'
참 비겁해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내라고 그랬다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 테니까 누이라고 그래서 나를 살려 달라, 이런 뜻으로 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비 집을 떠났을 때 아내에게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말려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도망쳐서 피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내 마음이 빨려들어가지 않고 도망쳐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쳐버립니다.
그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오늘 본문에 인용되고 있어요.
가장 사랑할만한 게 뭡니까?
100세가 돼서 얻은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셔요.
왜? 원래 아브라함이 좋아해야 할 것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좋아해야 할 하나님, 본래 소망의 내용이시고 본질이신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이삭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들로부터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무서워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을 상황에서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을 얻으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좋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도망치면 돼요, 내 마음에서 좋게 느껴지고 사랑할만하게 느껴져서 내 마음을 뺏어가고 있는 그것들로부터 피하여 도망치면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여간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사소한 것이든, 길 가는 자동차를 보고 좋게 느끼든, 아주 사소하게 생각이 지나가는 모든 순간에서조차도 마음이 뺏길까봐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처자나 전토를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대로 다 버린 거예요, 버렸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내가 도망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지 아셨지요, 여러분?
내 마음이 좋게 느껴지고 내 마음에 사랑스럽게 느껴져서 내 마음을 뺏길만한 모든 것들로부터 피해서 도망치는 겁니다.

거기 어정쩡하게 남아있지 마세요.

이제 도망쳤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감옥에서 탈출했는데,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고 나와서 감옥 담장 밑에서 서성거리다가는 다시 잡혀 들어갑니다.
자식을 피해서 도망 나왔어도 어정쩡하게 갈 방향을 모르다가는 다시 붙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지성소로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지성소는 무얼 말하는 겁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얘기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뺏어갈 만한 좋은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쳐 나오는 겁니다, 피해 나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만큼 아브라함이 아내로부터 마음이 도망쳐 나온 것처럼 도망쳐 나와야 되요.
별로 그리 좋아하지 않는 아내와 삽니까?
그러면 도망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좋고 진짜 예쁘다, 그러면 도망쳐야 되요.
자식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서 저놈을 내가 희망을 가질 가능성이 없는 놈이다, 그러면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진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자식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사업이 안 돼서 버릴까 말까 낑낑대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 때문에 도망칠 필요 없어요.
사업이 잘되고 너무 기가 막히다, 이건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망하는 거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다시 못 박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떻게 도망칩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다, 그러면 아내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집을 나가야 됩니까?
집을 나가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십자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으로 내 마음을 뺏건 사랑으로 내 마음을 뺏건 기쁨으로 내 마음을 뺏건, 이 세상 것 중에서 내 마음을 뺏는 모든 좋고 사랑스러운 것들로부터 십자가를 붙잡고 도망치고, 도망치고 나서 머뭇거리지 마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돼요.
도망친 다음에 어떻게 되나 뒤를 돌아다보지 마요.
하나님께서 그쪽을 좀 잘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도망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붙잡고 도망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붙잡고 하늘나라로 가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걸 오늘 본문에는 소망의 닻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소망의 닻을 하늘에 내리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좋은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부활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하늘에 닻을 내리는 겁니다.
이 닻을 내리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하늘로 도망만 가는 겁니다.
좋아하는 모든 것들, 기쁨을 줄만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최고, 최선, 무지하게 좋은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서 하늘을 맛보게 하시고, 당신을 소유하게 하시면서 안식의 규정대로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다 받게 될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꿈과 비전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꿈과 비전 포함하여 모든 좋은 대상으로부터 무조건 피하여 도망하여 우리의 소망을 성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